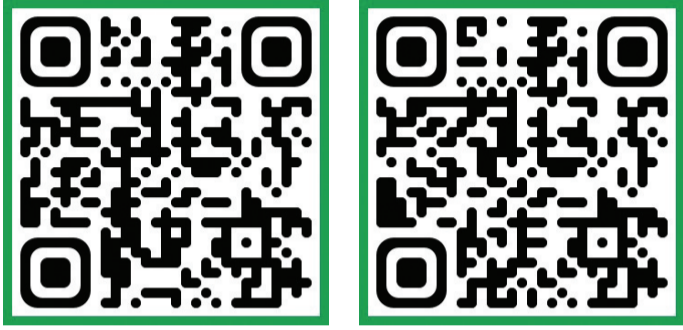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촛불로 하나됐다

사진=나명주·김진수·김다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광주를 비롯한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만,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려든 전국 각지의 집회 현장에서는 k-pop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선결제 릴레이'로 연대 메시지를 전하는 등 이색적인 집회 문화도 눈길을 끌었다. 전국민이 함께 한 간절함과 환희의 순간을 화보에 담았다.



▲ 탄핵 집회 현장 영상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광주 시민들이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각자 챙겨 온 응원봉을 '캠프 파이어'처럼 한 곳에 모아 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4일 서울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4일 서울 집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의 조형물이 행사장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14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대구 시민이 직접 만든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이 담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14일 (사)오월어머니집 어머니가 광주 집회에 참석한 시민에게 '탄핵 주먹밥'을 건네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일대로 모여든 시민들이 인근 상점에 선결제 된 커피나 어묵 등의 음식물을 받기 위해 줄서었다.